

광주사람들



임영희(요식업)

천인보(578/1000)



“저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뒷고기 특수부위 전문점을 운영하는 ‘돈구이 바람났네 닭이랑’ 대표 임영희입니다.

저는 식품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시절부터 요식업 운영의 꿈을 갖고 여러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며 20년이 지난 지금 꿈을 이뤘습니다. 물론 요식업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가게 위치가 앞 골목에서 한참 빠져 있는데도 저희 음식이 맛있다고 한 분 한 분 단골이 되어 주시는 손님들을 보면 힘이 붙곤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추천 메뉴는 특수 부위 뒷고기입니다. 돼지 머릿고기 쪽인데 도축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맛있어서 뒤로 빼서 먹었다 해 특수부위 뒷고기라고 하는데 머릿고기이다 보니 삼겹살과 다르게 지방이 적고 꼬들꼬들한 식감이 있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광에서 나고 자라 대학 공부를 위해 처음 광주에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광주는 청춘이고 젊음의 도시이자 먹거리 도시만큼 맛으로 인정받고 싶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많이 살아나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활기찬 광주가 됐으면 합니다.

저는 장사꾼이지만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남으면 자연히 돈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제 포부가 있다면 맛있는 ‘돈구이 바람났네 닭이랑’ 식당의 친절함 대표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유슬아PD seula.yu@jnilbo.com

“창단~아시아 무대 진출... 영화같은 순간”

문지수 광주FC 선수운영팀 사원

2014·2015 대학생 운영단 출신
“사무처 변화·혁신 지켜봐달라”

“광주FC가 창단했을 때부터 경기장을 다녔던 팬으로서, 선수단과 함께 했던 가족으로서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어요. 두 번의 강등과 두 번의 우승, 그리고 첫 AFC 챔피언스리그까지 모든 역사가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시아 무대로 향하는 기쁨의 환호 속에 흘로 눈물을 보인 문지수(31·사진) 광주FC 선수운영팀 사원의 소회다. 광주의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창단 후 처음인 만큼 구단 역사를 함께한 그에게도 아시아 무대는 처음이다.

문 사원은 “내년이면 입사 7년 차가 된다. 우리 경기가 전복현대보다 먼저 끝나고 업무를 하면서도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자체가 정말 생소한 기분이었다”며 “서포터즈들이 합성을 지를 때 ‘우리가 진짜 아시아로 가는구나. 시즌 초에는 강등 후 보라고 불렀던 팀이 보란 듯이 새 역사를



썼구나’하는 생각에 정말 벅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광주가 올 시즌 돌풍을 일으킨 배경에는 이정호 감독의 지도력이 컸지만 사무처의 헌신도 숨어있었다. 시즌 도중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이뤄지면서 잠시 혼란을 겪은 시기도 있었지만 사무처 전원이 똘똘 뭉쳐 제 역할을 해냈다. 문 사원 역시 홍보팀에서 선수운영팀으로 적을 옮겨 제2의 엄지성과 제2의 정호연 발골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느꼈는데 작년에는 자신감을 찾았다. 특히 주요했던 것이 대학생 마케팅의 활용”이라며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 모두를 적용하면서 정말 신이 나서 일을 했다. 색다른 동기부여였다”고 회상했다.

유스 지원 업무를 맡으며 새로운 시선도 열렸다. 문 사원은 “AFC 챔피언스리그 홍보팀이라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인 업무였다. 사실 처음에는 방황도 했다”면서도 “최근 여성 선수들과 킥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큰 동기부여를 느꼈다. 축구가 좋다고, 우리 팀을 대표한다고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는데 반성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꼭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사무처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정호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올 시즌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문 사원은 “대규모 인사 이동으로 잠시 당황도 했지만 모두 힘을 합쳐 정상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며 “노동일 대표이사과 임근훈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팀 전체가 발전을 위해 함께 뛰고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변화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표래식 명예회장·김종울 부회장, 총리·법무장관 표창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법무보호복지 날 기념식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협의회 표래식 명예회장(주수완 대표·사진)과 김종울 운영재정위원회 부회장(주보성이노택 대표·사진)이 5일 공단 본부에서 개최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표래식 명예회장은 2004년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돼 19년 동안 법무보호사업 지원, 숙식보호대상자 부식지원, 사랑의 체육대회 개최 등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김종울 운영재정위원회 부회장은 2013년 운영재정위원회 위원을 시작



표래식 명예회장



김종울 부회장

으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알선(16명), 생활관 환경개선, 모범 숙식대상자 상품권 지원 등 법무보호기금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은 “자원봉사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칸재 기자



‘지역신보법 개정안’ 김정만 의원 감사패

전국신용보증재단 노조협의회(전신노협)는 소상공인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정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전신노협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에 맞서 대한민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상생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단위의 연합노조 협의체로 김정만 의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법정출연요율 상향을 위해 입법투쟁을 진행해 왔다. 김정만 의원은 수익자부담 원천 및 타 보증기관과의 형평

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법 정출연요율 상향을 현행 0.1%에서 0.3%로 높이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2022년 4월 국회에 입법 발의했다.

오랜 기간 계류 중이던 이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안으로 반영됐다. 대안 법안 내용은 법정출연요율을 최소 0.08%에서 0.3%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적용율인 0.04%에서 최소 2배 이상 법정출연요율이 확대된다.

박소영 기자



광주시체육회, 체육지도자 워크숍 개최

광주시체육회는 7일 광주 염주체육단지 내 국민생활관 세미나실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문·생활체육지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2023 체육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안전재단 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일반 시민들을 위한 현장 지도 활동에 필요한 인권 교육 및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테이핑 교육을 했다.

오후에는 전문체육지도자 대상으로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부상방지 및 재활에 필요한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장애인체육회, 전국체전 종합평가회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지난 5일 강원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와 중앙경기단체 150명이 참석해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평가회를 개최했다. (사진)

평가회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대회 결과 △전남도 전국체전준비단 종합 평가 △종목별 경기단체와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합 평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총 9578명(선수 6061·임원 및 관계자 3517명)과 보호자 등 1만 여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해 세계 신기록 1종목, 한국 신기록 167종목, 대회 신기록 59종목과 다관왕 347명을 배출했다.

최동환 기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전일 게시판

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062)413-1195

부고

▼박임순씨 별세, 이강희(조선대 홍보팀장)씨 시모상 = 발인: 8일(금) 오전 8시 20분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2층 201호실 (062)250-4455

▼고재술(전남교육청 감사관)씨 별세 = 발인: 9일(토) 오전 6시 40분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061)242-7000

알림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

날씨와 생활



해돋이

해질



달돋이

달질

오늘의 날씨(최저/최고 기온) 자료: 기상청·웨더아이

광주·나주 담양·화순	☀ 6/20	무안·함평 장성·영광	☀ 7/18	목포·해남 신안·진도	☀ 9/19
순천·광양 곡성·구례	☀ 3/19	장흥·영암 강진·완도	☀ 4/19	여수·보성 고흥	☀ 10/17

전국 날씨

서울	☀ 7/16	대구	☀ 3/19	9일(토)	10일(일)	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대전	☀ 5/19	제주	☀ 10/22	☀	☁	☔	☀	☀	☁

물때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미세먼지	외출지수	우산지수
흑산도 10:30 22:36	04:00 16:27	완도 07:11 18:54	00:52 13:11	보통	교외로 드라이브	우산 없이도 좋아요